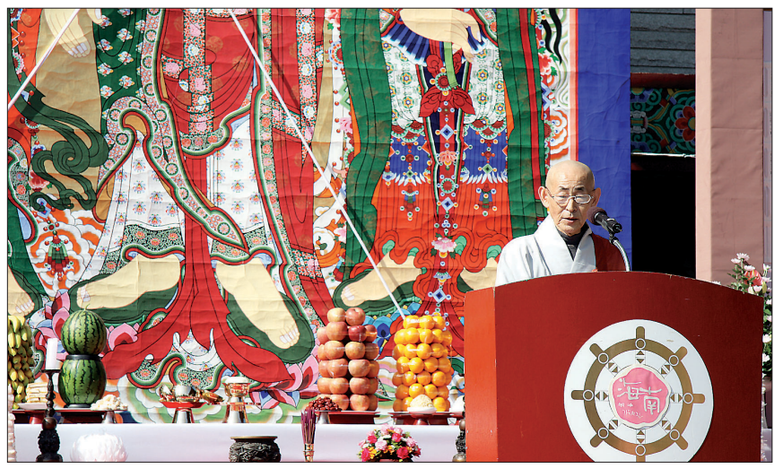
# 울산 해남사, 민족불교도량 역사 재조명

## 10월 26일 개산 105주년 영산재 봉행

**한일합방 후 1911년 구하 스님 창건**
**자료 없어 1935년으로 기록 오류**
**영산재 통해 '개산 105주년' 천명**
**울산 수해 지역 복구 기원 기금 마련**
**동국 유치원 및 문화회관건립 추진**


울산 해남사는 10월 26일 경내에서 '울산 재해극복과 무사안녕을 위한 영산재'를 봉행했다.

울산 해남사(주지 남현)가 개산 105주년을 맞아 영산재를 봉행하고 창건 역사를 재조명하며 '민족불교도량'임을 선포했다. 아울러 수해 피해 지역민을 위한 회향의 자리로, 울산 재해극복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영산재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불자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피해복구를 위한 의지에 동참해 더욱 의미가 깊다.

해남사는 10월 26일 법당 앞마당서 개산 제105주년 '울산 재해극복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영산재'를 개최했다.

영산재에 앞서 10월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서 주지 남현 스님은 "해남사는 일제 시대 민족교육장으로 창건된 도량이다.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산재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남현 스님은 "해남사는 구하 스님이 통도사 포교당 가운데 제일 먼저 창건한 곳이다. 1911년 10월 통도사 울산 포교당으로 창건됐으나 일제시기 기록물이 남아 있지 않아 현재까지 창건일이 1935년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이어 스님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 창건 이념을 되살리고, 앞으로 동국 유치원 재개원 및 문화 회관 설립을 추진해 도심포교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서원했다.

이를 위해 남현 스님은 〈포교구현황 일람표〉(조선불교월보, 1913년 8월)서 '1911년 10월'이 해남사 개산일임을 발견해 자료로 제시했다.

남현 스님은 "1910년에 한일합방 후 이를 안타깝게 여긴 구하 스님께서 1911년에 울산에 민족불교도량으로 해남사를 창건하셨다. 이 후 불교 소년단, 야학원, 고등강습회, 해영학원, 유치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설립해 민족교육장으로 활동했다"며 "구하 스님과 이곳서 활동하며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재를 올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전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영산재는 오후 2시 까지 총 5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대북, 태평소, 아쟁, 대금 등이 어우러진 태평무 속에 육법공양으로 작법이 시작됐다. 무형문화재 영산재 이수자인 상묵 스님의 범패로 상단불공과 신중 작법이 시작됐으며 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 장례훈 외 무용단이 펼치는 바라춤과 나비춤, 관음무, 선비춤이 이어져 박수를 받았다. 이어 관음시식에서 살풀이춤과 극락무가 재현됐으며, 영가봉송에선 부모은중경, 회심곡에 따라 연(가마)에 영가들을 태우고 봉송과 소대를 끝으로 회향했다.

남현 스님은 "오늘 이 자리 영산회장에 참여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동국 유치원을 재건하고 문화회관을 불사해 앞으로 여기 서 있는 땅 모두가 부처님의 도량이 될 때 까지 울산 포교당 주지로서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동국 유치원은 2009년에 80년 역사를 잇지 못하고 휴원해 울산 불자들의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다. 울산 시민의 문화공간이자 포교 공간으로 구상하고 있는 문화회관 건립도 원만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해남사는 10월 22일 설법보전에서 거사림회 '유마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초대 회장에 박소흠 한국중고농구연맹회장이 임명됐다.

하성미 기자

# 부처님 향한 하모니의 향연 펼치다

##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11월 15일 합창제 개최

깊어가는 가을,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부산 불교합창단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박화자 · 이하 합창단)는 '2016년 부산불교합창제'를 11월 15일 오후 5시 부산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서 개최한다. '생명 · 사랑 · 나눔 · 보시'를 주제로 여는 이번 합창제는 범어사, 문수사, 동명불원 등 부산에 위치한 사찰 18개 소속의 합창단들이 연합으로 참가하며, 80여명의 단원들이 하나가 돼 불심을 노래하는 장엄한 무대다.



2016년 부산불교합창제 포스터

합창단은 먼저 귀에 익숙한 가요 '내가 만일'을 편곡해 선보이며 '영겁을 하루 같이', '아름다운 나라' 등 다채로운 곡을 준비한다. 가장 주목할 곡은 피날레를 장식할 이찬우 작곡가의 '어느 암자의 사계절'이다. 이 곡은 고즈넉한 산사의 계절을 묘사하며 어느 노 스님과 동자 스님 간 대화로 구성된 총 14분의 대곡이다. 또한 기승전결 스토리가 담겨 서정적이고 장엄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

합창제는 개회식과 1부 특별공연, 2부 합창단의 무대로 이어진다. 먼저 부산 대원사 선재 어린이합창단의 무대로 문을 열어 각 내빈의 축사가 진행된다.

특별 공연에는 범어사 합창단, 불교BTN 남성중창단, 통도사 우담바라합창단, 서울 제니스합창단, 그리고 독창으로 바리톤 유용준 성악가가 특별 출연한다. 유용준 바리톤은 이탈리아 밀라노 G.Verdi 국립 음악원에서 오페라를 전공하고, 이탈리아 밀라노 G.Donizetti 아카데미서 합창 지휘와 뮤지컬 등을 전공한 재원이다.

아울러 이번 부산불교합창제를 계기로 '로터스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단장 정희보)가 새롭게 결성됐다. 43인조 관현악단으로 구성된 이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합창 중심으로 이어진 불교음성포교에 관현악 선율을 더해 풍성함을 꾀한단 계획이다.

한편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1999년 2월 창단해 매년 합창제를 개최한다. 2001년 12월 '전국불교합창제를 시작으로 2002년 3월 이태리 '리바델 가루다 국제합창제'에 참가해 Silver 9상을 수상했다. 이후 2002년 10월 세계합창올림픽에서 동메달, 2004년 9월 독일 브레멘에서 열린 제3회 세계합창올림픽대회에서 종교음악 불교부문 동메달을 수상했다.

박화자 단장은 "이번 합창제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오랫동안 닦아온 지극한 수행력과 음성포교의 원력을 펼치는 자리"라며 "공연을 통해 단원들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새로운 발심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합창제는 무료로 진행되며 화환 대신 받은 쌀과 후원금은 모두 부산시청에 전달, 소외이웃에게 회향될 예정이다. (051)867-0501

하성미 기자

# 대구 금정사, 개원법회 및 점안식


대구 금정사 주지 도성 스님은 10월 22일 개원법회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

대구 금정사 주지 도성 스님은 10월 22일 개원법회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용주사 문중 본원 스님, 홍법 스님, 만도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주지 도성 스님은 "부처님 인연으로 함께 불사해 준 신도들과 문중 스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원이차인연공덕으로 세세생생 무량복덕 지으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용주사 본원 스님은 "불교는 과학적인 고등종교, 위대한 종교"라며 "자기를 찾는 가르침이 반야심경과 팔정도에 다 있으니, 오늘 모인 사부대중이 육바라밀을 실천해 불성을 일깨워 바라는 대로 이뤄질 수 있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제2회 해운정사 불조심인전등다례재

## 불조의 뜻 이어 국태민안 및 세계 평화 발원


부산 해운정사는 10월 23일 불심인조사전 앞에서 '제2회 불조심인전등 다례대재'를 개최했다.

108명의 불조 전등, 심인법의 주인공들을 추모하는 특별한 다례재가 봉행됐다.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가 주석하는 부산 해운정사는 10월 23일 불심인조사전 앞에서 '제2회 불조심인전등 다례대재'를 개최했다. '불조심인전등 다례대재'는 불조(佛祖)의 정맥을 되새기고 불교의 전통문화와 도심 선포교, 선의 세계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엔 진제 대종사를 비롯해 원로회의장 밀운 스님, 서병수 부산시장 등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진제 스님은 "전통 심인법이 한국에 남아 세월이 흘러도 그 열매가 풍성하다"며 "앞으로 부처님의 정통심인법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며 부처님의 염화미소가 면면히 이어지길 발원한다"고 설법했다.

원로 의장 밀운 스님은 "작금의 사바는 국가는 국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폭풍우 치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쪽배처럼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렸다"며 "이러한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는 중생들의 삶에 등불이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 팔공산 지장선원, 당산제 및 효도잔치



팔공산 지장선원은 10월 23일 제2회 산신7일기도 회향 당산제 및 효도잔치를 개최했다.

팔공산 지장선원(선원장 지공)은 10월 23일 제2회 산신7일기도 회향 당산제 및 효도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천사 소소 스님, 자광사 송광 스님, 무량사 지원 스님, 보현암 선진 스님, 지역단체장, 홍사단 애기애타 웃음봉사단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선원장 지공 스님은 "산신7일기도 회향을 맞아 마을의 고유 민속문화인 당산제를 개최, 지역어르신들과 소통 · 화합 · 단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안락한 행복을 기원하는 잔치에 함께 해준 어르신과 대중들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울산 정토사, '독도의 날' 기념식 열어

## 사)독도중앙연맹 이수광 총재 강연 진행

울릉도 · 독도수호박어둔선양회(회장 덕진 · 이하 박어둔선양회)는 10월 27일 정토사 대웅전 앞서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사)독도중앙연맹 이수광 총재의 특별 강연을 마련했다.

이수광 총재는 독도를 알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40여년 동안 독도 사랑의 외길을 걷는 장본인이다.

이 총재는 독도수호를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를 피해야 한다며 "영토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국제사법 재판소는 일본이 연간 재정의 3분의 2를 지원하고 있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 또한 영토문제에 대해 양국 합의화를 종용한다"며 "우리 영토인데 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냐"고 강조했다.

이어 "독도는 현재 경찰이 국토를 수호한다. 영토는 군이 지켜야 하는 것이다. 군인이 주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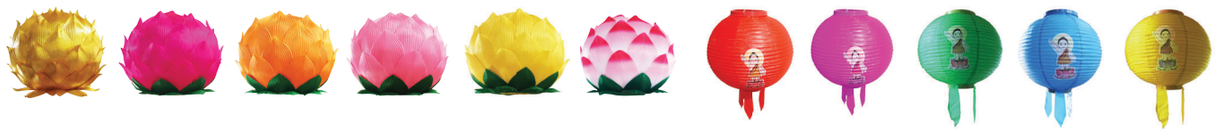
한편 이날 정토사는 제5회 전통음식문화 한마당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정토사 전통음식연구회원들의 사찰음식 및 약선요리 100여점이 선보였으며, 음식 전시 외 각종 차 시음 및 꽃차 전시회 등 다양한 체험 코너도 마련됐다.

하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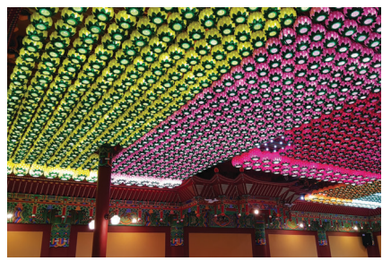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BORYEON |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